

# 2017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6.30(금) 12:00~13:30

## ■ 주요 회의 내용

### ▲ 보도내용의 검증과 심층적 설명 필요

- 연합뉴스TV는 각료임명 청문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느낌. 스스로 어느 후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증을 시도하지 않는 느낌이고 각 정당의 공방을 중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뉴스매체로서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음(이재경 위원)
-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여건을 감안 할 때, 정부의 '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지' 조치에 대하여 단순한 뉴스 보도에 더하여 전문가 의견 등 각계의 반응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김상선 위원)
- 코스피 '새 역사'...장중 2,400선 돌파.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상승을 체감하기 어려움. 소외감 느끼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는 표현도 적어줬으면 함(박동민 위원)
- 7~8월 일사병·열사병 주의...5년간 58명 숨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뉴스는 팩트 전달 뿐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언급해줄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일반인이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람(박동민 위원)

### ▲ 보도의 차별화 전략과 다양성 추구

- 24시간 뉴스이지만 메인뉴스로 여겨지는 프로그램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음. 밤 7시나 8시 등 특정 뉴스 시간을 타사의 메인뉴스처럼 앵커부터 구성까지 차별화시키면 어떨까 싶음(주철환 위원)
- 전반적으로 문화관련 뉴스가 줄어든 것으로 느껴짐. 뉴스의 다양성을 위해 정치뿐 아니라 문화 관련 뉴스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음. 지방의 뉴스가 좀 더 다채로웠으면 함. 지역 주재기자들을 이용한 지역 곳곳의 소식이 좀 더 많아졌으면 뉴스가 풍부하게 느껴질 것 같음(주철환 위원)
- 문화나 스포츠 뉴스 등도 조금 더 강화하였으면 좋겠음(김용직 위원)

### ▲ 앵커, 출연자 관련 의견

- 연합뉴스 TV는 안정감과 균형감이 있어 전체적으로 좋아 보임. 다만, 다른 방송의 경우 인기 있는 앵커를 내세우는 데 비해, 연합뉴스는 그런 것이 부족함. 간

판 앵커를 내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음(김용직 위원)

- 돌발상황 발생시 앵커들의 순발력이 부족해 보임. 앵커들 역시 뉴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춰야 순발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똑같은 패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뉴스보다는 화제의 인물을 데려다 대담을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의 신설을 고려해보면 좋을 듯함(주철환 위원)

#### ▲ 화면구성과 자막, 표현에 신중해야

-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노동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는데 최저임금 금액과 노사 양측의 찬반주장만 보도되고 있음. 양측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와 해설을 해 주었으면 함(박동민 위원)
- 6월 8일 아침 9시경 방송에 “슈트릴케호 이라크전 앞두고 부상경계령” 스크롤 속보 자막이 뜬. 이미 6월 8일 새벽에 경기(한국-이라크 득점 없이 무승부)가 끝난 상황에서 속보자막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기존에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방영되는 사례 발생. 따라서 야간 데스크에서는 아침 6~7시 경 스크롤 자막 등 뉴스자막 업데이트 필요(신현택 부위원장)
- 미국 경제사절단이 향후 5년간 40조원을 대미투자자와 미국산 구매에 쓰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사 제목에 ‘선물보따리’라는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한국기업이 미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음.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기업들이 국내투자는 제쳐두고 굴욕적인 자세로 미국에 투자한다는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박동민 위원)

#### ▲ 긍정적 평가

- 특정인이 부적절한 내용을 중심으로 90% 이상 도배하고 있던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 조치하여 정상화시킨 점이 돋보임(김상선 위원)
- 주말에 캐스터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눈길을 사로잡았음(주철환 위원)
- 화면 구성이 깔끔해지고 뉴스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박동민 위원)

- . (끝)